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2018년 9월 7일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국현	건국대학교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권혁진	동국대학교	교수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완섭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동헌	한양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서론	1
II. 연구용역 결과	2
1. 산업개황	2
2. 환경변화	4
3. 규제체계	5
4. 정책효과	6
5. 시장획정	7
6. 종합평가	8
III. 보험업 경쟁도에 대한 종합평가	13
1. 경쟁도 평가 결과	13
2. 정책제언	17

I. 서론

1. 평가의 목적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금융위원회의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2. 평가의 내용

- ☐ 보험산업의 시장확정 및 분석을 통해 경쟁도 관련 종합평가를 도출
- ☐ 경쟁상황 평가, 환경변화, 규제체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

3. 평가의 방법

- ☐ 연구 기관의 용역보고서(소비자 설문조사 포함)를 토대로 4차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침
- ☐ 시장집중도와 관련한 1차 평가 후 수익성, 향후 성장가능성,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2차 평가를 진행

4. 평가의 한계

- ☐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절차의 수행이나 자료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 평가결과는 기준시점(2018년 9월)의 평가로, 향후 주기적인 경쟁도 평가 진행으로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연구용역 결과

1. 산업개황⁷

가. 생명보험

- (회사수) 2018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사 25개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국내회사 16개 외국회사 9개임
 - IMF 구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1998년 33개에서 2001년 22개로 감소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22~25개사 수준 유지
 -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종합보험회사 형태
- (보험료) 2017년 초회보험료 12조원, 수입보험료 113조 9천억 원
 - 초회보험료는 2014년(18조 원)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입보험료 역시 처음으로 2016년(119조 8천억 원) 이후감소
 - 종목별로 보면 사망 및 생존보험이 감소하고, 연금이 증가
- (수익성) 2017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약 3조 9천억 원
 - 2017년 자본이익률(ROE)은 약 6%이며, 2011년 이후 하락세
 - 보험회계기준 변경과 지급여력기준 강화로 인한 요구자본량 증가와 보험료 성장률의 둔화가 자본이익률 하락의 주요 요인
- (건전성) 2017년 12월말 생명보험회사 전체 RBC비율은 267.6%이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상회
 - 2021년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과 금리인상예상을 감안하면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
- (판매채널) 생명보험 보험판매(초회보험료) 중 설계사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 방카슈랑스와 독립대리점의 비중이 증가
 - FY2001년 설계사 채널의 비중은 60.3%였으나, 방카슈랑스 등장 이후 급감하여 FY2008년 39.7%, CY2017년 18.4%로 축소

나. 손해보험

- **(회사수)** 2018년 3월 현재 손해보험회사 수는 모두 31개, 국내회사 14개, 외국회사 4개, 외국지점 13개
 - 2000년 17개이던 손해보험회사 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30개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상태를 보임
 - 국내손해보험회사의 유형은 종합보험회사 형태가 주를 이룸
- **(보험료)**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합계는 약 88.3조원
 - 이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은 70.9%, 자동차보험은 19.1%, 일반손해보험은 10.0% 차지
 - 원수보험료 증가율(3년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전까지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러한 손해보험시장의 변화는 장기손해보험이 주도
- **(수익성)** 2017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약 3조 8,530억원
 - 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은 약 11.9%,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은 약 1.4% 기록
 - **(이익구조)**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을 통해 만회하는 이익구조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건전성)** 2017년 12월말 기준 손해보험 RBC 비율은 238.5%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상회
 - 손해보험의 경우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이 낮아 생명보험에 비해 회계제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판매채널)** 모집형태별로 볼 때, 대리점이 2017년 기준 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설계사로 26.1% 기록
 - 2005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설계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모집방법별로 볼 때, 대면채널의 비중은 감소 추세, CM 비중은 증가 추세

2. 환경변화

- **(고령화와 가구구조)**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약화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로 위험보장에 대한 니즈가 변화
 - 최근 10년 동안 고령층과 미혼의 보험가입률이 증가함
 - 보험종목별로는 사망보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 거시경제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와 저축률 하락 등이 예상되며, 그 결과 보험시장 위축
- **(거시환경)**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저축성보험시장에 영향
 -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이 줄고, 보장성보험 공급 증가
 - 저축성보험의 대안으로 연금보험 공급이 증가할 것이나, 재무건전성 강화로 종신연금 대신 확정연금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타 금융권 연금 상품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시장경쟁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4차 산업혁명)**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가능
 -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주요 기능이 위탁, 분화되어 전문기능 보험회사 출현 예상
- **(회계제도)** 2021년 시가평가제도인 IFRS17의 도입은 장기상품 위주인 생명보험회사에 영향이 클 것
 - IFRS17이 도입되면 금리확정형 상품의 역마진이 부채로 평가
 - 금리하락 시 만기가 긴 부채의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커서 만기 불일치가 클수록 요구자본이 늘어나고, 시가기준 준비금 적립으로 자본확충이 중대 현안으로 부상
 - 생명보험회사들은 자본변동성 부담이 적은 종신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공급을 확대

3. 규제체계

□ (허가단위) 2003년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

- 생명보험업 2종목, 손해보험업 11종목, 제3보험업 3종목

<보험종목별 최저자본금>

(단위: 억 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보험종목	자본금	보험종목	자본금	보험종목	자본금
1.생명	200	1.화재	100	1.상해	100
2.연금	200	2.해상	150	2.질병	100
		3.자동차	200	3.간병	100
		4.보증	300		
		5.재보험	300		
		6.책임	100		
		7.기술	50		
		8.권리	50		
		9.도난 등	50		
		10.비용	50		
		11.날씨	50		

□ (최저자본)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종목별 금액의 합계액을 최저자본금 요건으로 함

- 단, 그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으로 함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겸영관련) 제3보험업인 상해·질병·간병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겸영 가능

- 또한, 연금저축, 퇴직보험, 일정 조건 하의 질병사망 담보 보험도 손해보험회사가 판매 가능

4. 정책효과

가. 공급측면

- 2003년 보험종목별 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동차보험 온라인전업사 4개사(더케이, AXA, 에르고 다음, 현대하이카) 시장 진입
 - 2003년 3.3%이던 온라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8.0% 기록
- 온라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자 일반보험회사도 자동차보험 CM채널에 진출하기 시작
 - 전체 원수보험료를 채널별로 구분할 때, 2003년 0.3%이던 CM채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5.6% 기록
 - CM채널 비중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약 3% 미만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수요측면

-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비교 용이성 증대와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도입
 - 소비자설문조사 결과, “방문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
 - ‘보험다모아’에 방문 이유로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고, “최저 보험료 상품 검색을 위해서”(37.0%), “보험 상품에 직접 가입하기 위해서”(2.3%) 등의 순서
-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는 계층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환경 개선 필요
 - 주요 방문 계층은 30대와 화이트칼라였으며, 50대 이상 고령자와 주부들의 경우 “방문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상품들의 비교가능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컸음

5. 시장확정

- **(법적구분)** 보험업법에는 생명보험업 2종목, 손해보험업 11종목, 제3보험업 3종목이 열거되어 있음
- **(통계구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보험종목 구분에 따라 원수보험료 통계 제출
 - 생명보험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다시 개인은 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으로 구분, 단체는 일반단체와 퇴직연금으로 구분
 -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대분류는 장기, 자동차, 화재, 해상, 특종 등으로 구분
- **(부서구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부서구분은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종목별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크게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그리고 일반손해는 다시 화재, 해상, 특종으로 구분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확정
 - 수요대체성을 고려할 경우 보장수요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인가단위가 연금과 연금을 제외한 전체 생명보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계자료의 한계로 종목별 시장분석 수행이 어려움
 - 다만, 세부시장의 경쟁상황 파악을 위해 종목별(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 일반단체, 퇴직연금)로 분석을 수행함
- **(손해보험)** 수요대체성, 허가 단위, 보험회사의 부서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손해, 자동차, 화재, 해상, 특종보험으로 시장확정
- **(생손경쟁)** 일반사망, 종신, 변액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관계에 있으나 통계의 미비로 두 시장을 구분하여 집중도 계산
 - 따라서 시장집중도 해석 시에 이러한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시장집중도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6. 종합평가

가. 생명보험

1) 시장구조 지표를 통한 1차 평가

□ 2017년 생명보험시장의 HHI 지수는 994

- 종목별로 보면, 개인보험은 생존(1,226), 사망(1,052), 생사(946), 변액(1,367)로 대부분 종목이 1200이하로 경쟁시장으로 구분, 변액보험은 약한 집중시장으로 구분됨
- 단체보험은 퇴직연금(1,754), 일반단체보험(3,462)로 집중시장

□ 2017년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은 CR1 23%, CR3 45.4%, CR4 50.6%

- 종목별 CR4를 보면, 개인보험의 모든 종목은 39~61% 사이이며, 단체보험은 85.8%임

□ 단체보험 종목은 집중도가 높으나 손해보험 및 타 금융업권과 함께 경쟁

- 퇴직연금의 경우 2016년 현재 타 금융권 포함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HHI 지수는 564임
-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경쟁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수요가 제한적이고 손해율이 높음

□ (1차평가) 시장집중도 정량지표에 근거하면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종목별로 개인보험 중 생존, 사망, 생사혼합은 경쟁시장, 변액보험은 약한 집중시장에 해당
-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은 집중시장 범위에 해당하나, 인접시장을 고려했을 때 높은 집중도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님

2) 1차 평가의 적절성 검토

□ (시장성과) 생명보험시장의 수익성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자본이익률(ROE)은 2011년(12.4%) 이후 한 자리 수로 하락하여, 2016년 3.4%, 2017년 5.2%
- 총자산이익률은 2016년 0.32%, 2017년 0.49%
- 일본 생명보험의 경우 2017년 4분기 현재 자본이익률은 7.6%, 총 자산이익률은 0.5%

□ (채널경쟁) 최근 독립대리점의 규모가 커지면서 판매채널 경쟁이 가속화

□ (진입장벽) 현재 생명보험의 최소자본금 수준은 대형 종합보험회사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임

- 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진입과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
- 한편, 독립대리점의 활성화로 전속설계사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어, 신규회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시장성숙도)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성숙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가구가입률은 84.9%
- 우리나라 보험침투도(GDP대비 수입보험료 비중)는 12%로 선진국 평균인 8%와 비교해 높은 수준

□ (최종평가)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성과, 채널경쟁, 진입장벽, 시장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1차 평가 결과와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나. 손해보험

1) 장기손해보험

□ (1차평가) 장기손해보험시장의 1차 평가는 경쟁시장으로 판단

- 통계의 부재로 인해 장기손해보험을 생명보험과 분리하여 시장집중도를 계산했으나 일부 생명보험종목(종신보험, 일반사망보험, 변액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경쟁관계에 있음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집중도를 계산하면 2017년 기준 HHI 지수는 1,472
- 정확한 계산은 아니나 대략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 생명보험(일반계정 개인 관련 수입보험료만)과 장기손해보험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HHI 지수를 계산하면 580으로 떨어짐

□ (최종평가) 시장성과 지표, 규제 등을 고려한 2차 평가의 경우 1차 평가를 반복할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경쟁시장으로 평가

-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이 약 103.6%였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
- 장기손해보험상품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가격규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제약이 존재
- 시장행위와 관련해서는 장기손해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수요측면의 경쟁압력은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1차 평가를 반복할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자동차보험

□ (1차평가) 시장구조 지표를 토대로 한 1차 평가는 집중시장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HHI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400에서 1,800 사이의 구간에 위치

□ (최종평가) 시장구조 지표 측면에서는 집중시장에 해당되나, 시장성과 지표, 시장행위 지표,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최종적인 평가는 경쟁시장

-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이 약 104.6%였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100%를 상회
- 또한, 가격규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격비교 용이성, 시장조사 경험 등에 있어서 다른 보험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측면의 경쟁압력이 높다고 판단됨

3) 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

□ (1차평가) 시장구조 지표를 토대로 한 1차 평가는 집중시장

- 화재보험의 경우 HHI 지수가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1,200에서 1,400 사이에 위치,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사이에 위치, 특종보험은 1,200에서 1,800 사이에 위치
- 세 종목 모두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인 CR4가 2001년 이후 최근 까지 60~80%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최종평가)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1차 평가를 번복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집중시장으로 평가

-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이 화재보험은 97.7%였고, 해상보험은 96.5%, 특종보험은 83.9% 기록
-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4) 전체 손해보험

□ (1차평가) 시장구조 지표를 토대로 한 1차 평가는 집중시장

- HHI 지수는 1,300에서 1,600 사이의 구간에 위치
- 2001년 이후 CR4가 지속적으로 70% 내외를 유지, 상위 4사의 경우 2001년 이후 순위 변동 없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 (최종평가) 시장성과 지표를 고려할 때 1차 평가를 번복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집중시장으로 평가
-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자본이익률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약 11.9%
 - ※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10년 평균 ROE가 약 7.10%
 - 자본이익률(3년 평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후 증가추세

Ⅲ. 보험업 경쟁도에 대한 종합 평가

1. 경쟁도 평가 결과

□ (평가방법) 보험종목별 HHI지수*에 따른 정량평가(1차) 후, 시장 성과(ROE, 손해율 등) 등 기준으로 정성평가(2차)를 진행

* (공정위 기준) 1,200 미만, 1,200~2,500, 2,500이상으로 단계 구분
(美법무부 기준) 1,500미만(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2,500(다소 집중), 2,500초과(매우 집중)

○ 시장 집중도 평가를 위한 대표 지표인 생·손보산업 및 보험종목별 HHI지수를 통해 정량평가를 실시(1차 평가)

○ 수익률·향후 성장가능성·소비자 수요 등 생·손보업종 및 보험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를 진행(2차 평가)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

* ROE의 경우 '11년(12.4%)이후 '17년(6%)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획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

* 장기 저축성 보험이 아닌 화재·해상·특종보험 등

○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1,400~1,800으로 높은 수준이나, 높은 손해율(대부분 100% 초과)·수요측 경쟁압력 등 감안시 경쟁시장으로 평가

○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 (총평) 현 시점에서 생명보험업 전체, 손해보험업 중 자동차,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경쟁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 및 사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위험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도가 낮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전체 손해보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적임
- (정책제언)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 종목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또는 채널 등이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기술발전,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험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상품 경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상품을 찾아 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보험사 등의 추가 진입도 허용할 필요
 -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IT보안·반려동물 등 특수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